

< 동정자료 >

변창흠 장관, “항공사 간 통합 시너지로 소비자 편익 확대” 당부 - 10일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과 면담 가져 -

-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0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신년 예방을 받고, 면담을 가졌다.
 -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, 정부는 그간 항공사 금융·고용 지원 외에도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M&A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.
 - 변 장관은 이번 면담을 통하여, 각 국 항공사들이 합종연횡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,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,
 - 대한항공-아시아나 간 통합은 항공 분야 최대 현안으로, 주무장관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
- 변 장관은 이어 세계 7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의 출현이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이 세계 다른 항공사들과는 달리,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여객기의 화물기 전환 등을 통해 흑자경영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,
 - 통합 항공사 출범 후에도 고용안정과 노사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,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여행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·핵심노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달하였다.

2021. 2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